전통사찰 신·개축 건축법 적용 안돼

전사법기준 문체부허가로…일반건물과 구분

대법원, 락가사·법왕사 '피소사건' 판결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 있는 건축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는 건축법에 의하지 않고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통사찰이 신행활동을 위한 법당, 요사채등의 신, 증축이 일반 건축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절차상의 중복을 없애고 문체부 허가만으로 가능하게 된 첫번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춘천지검이 강원도 락가사와 법왕사 주지를 상대로 낸 건축법위반 상고심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인 피고인들이 각 그 사찰의 경내지 안에 스님과 신도들의 식당 및 주거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통사찰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특수한 건조물로서 그 경내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화있게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때문에 전통사찰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경내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전통사찰 등록시에 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개개의 건조물뿐 아니라 그 나머지 건조물도 전사법에 의거 지역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강원도 명주군 소재 락가사(주지 청우)와 법왕사(주지 혜운)는 93년 사찰경내의 축대가 무너져 개축하는 과정에서 협소한 도량을 넓히기 위해 각각 요사채와 법당을 신축하자 명주군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철거를 요하는 소송을 냈었다.

불교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부분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한석훈변호사는 "그동안 전통사찰이 법당 중창을 할 때마다 일반 건축법과 전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법적 절차가 중복되었던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문체부의 허가만으로 경내지의 현상변경을 할 수있는 길이 열려 법적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8백22개의 전통사찰이 있으며 이들 사찰은 경내지 현상변경때 마다 건축법에 따라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국도보호, 산림법 등을 이유로 승인이 어려워 사찰마다 신행활동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이다.

성남의 전통사찰 만경암(주지 종술)의 경우 3년전 경내에 석조불상을 세웠으나 성남시가 공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하는 계고서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전통사찰이 신행활동에 따른 전각과 시설물 신,증축과정에서 일선 행정기관과 빚어온 마찰을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준엽 기자〉

조계종직영 선본사 총무원 한달간실사

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일명 갓바위)가 지난달 27일부터 약 1개월간의 실사에 들어갔다. 이번 실사에는 조계종 재무국장 종삼스님 호법부 조사과장 운광스님 및 종무원이 총무원에서 직접 파견돼 사찰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수익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조계종 사찰중 수입이 많기로 이름높은 선본사는 관리권 문제를 놓고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원장 초우스님)과 은해사간에 알력다툼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대구·경북의 5개 교구본사(불국사 직지사 동화사 고운사 은해사) 주지스님들은 마하야나의 사설사암 회관 건립에 선본사의 수입일체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선본사 주지를 교체해 달라는 진정서를 총무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본사외에 조계사 강화 보문사 등이 조계종 직영사찰로 지정되어 있는데 강화 보문사에도 지난 1월 약 보름간의 실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금사회복지관 개관

부산불교계 최초로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개금사회복지관(관장 정덕)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갖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희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개금사회복지관은 앞으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동안거 해제법어

월하스님〈조계종 종정〉

법상에 오르셔서
불자를 들고 계시다가
참 부처는 입이 없어 설법함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듣는 이는 귀가 없거늘 누가 들으리오.
들어보아라 오늘은 정월 대보름
눈발이 거치면 맑은 봄을 볼 것이라 많은
절에는 천등이요 하늘에는 둥근 달 고요한
밤 깨는 범종소리 마음에는 법석이는 풍류
이 모두가 원통의 경지인데 굳이 따로
나루터를 물을 것인가 일러라 이 무슨 도리인
고?
잠시 계시다가 불자를 높이 들어올리시고
필경 이것이 무엇인고?
대중이 말이 없자 불자를 내리시고
말씀 하시기를 마음이 스스로 마음 아니라야
비로소 이 마음이며 눈이 스스로 눈을 보지
않아야 모름지기 이 눈이니라 알겠는가?
차를 드시고
착어하시기를 영축산 고목의 싸다운 신은
날카로운 말재주에 있지 않고
뒷짐지고 감자기 뽑아버리면
큰 고래 달을 삼켜 하늘에, 파도가 닿는도다.
할을 하시고 불자를 거두시고 하좌하시다.

전국사찰 동안거 해제 금당선원은 2개월 연장

전국의 선원과 사찰은 지난 14일 3개월간의 동안거를 마치고 해제했다.

이번 안거에는 60여개 선원에서 총1천2백여명의 스님이 정진에 임했다.

한편 동화사 금당선원은 결제를 2개월 연장, 4월14일 해제한다.

최형우씨등 무혐의 재야단체 반박성명

불교인권위, 전불련, 실천승가회등 불교 재야단체들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4월 조계사 공권력투입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던 최형우 전 내무장관등 3명이 서울지검 형사3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원회 소속스님등 3천명은 지난해 6월 최형우씨외에도 이기태 전 서울경찰청장, 최기문 전 종로경찰서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었다.

16일 종단협 정기총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정기총회가 오는 16일 오후 3시 종단협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정관개정 △94년 업무보고 및 결산 보고 △임원선출 등 5건이다.

기자증 분실

- 성명:김중근
- 주민등록번호:670416-1338710
- 기자증번호:440492
- 분실일:1994. 11. 26
- 분실사유:지하철내에서 분실

단신

8기 행자교육원 개설

조계종 제8기 행자교육원이 오는 3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양산 통도사에서 개설된다.

지난해 9월 10일 이전 입산해 전국 각 사암에서 기초행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승려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자교육은 교육법 제55조 3항및 승니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로서 교육원 입방심사에 합격한 자만이 교육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15일~25일

접수 각 교구본사·교육원 (02)732-4923~4

특별정진법회 봉행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지난달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선원 법당에서 새해맞이 한마음 특별정진법회(촛불제)를 봉행했다.

각자 마음의 촛불을 켜고 조상들의 왕생극락과 자손들의 번영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된 촛불제는 신도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단불공, 염가시식, 촛불제로 이어졌다.

어린이 7명 의료지원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 문필녀)는 지난 6일 혜화동 원효정사에서 심장병,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 7명에게 총 1천만원의 의료지원비를 전달했다.

이번 의료비지원은 지난해 10월 개최했던 심장병, 백혈병 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의 수익금 2차분이 전달된 것으로 김기창 어린이를 비롯 7명의 어린생명들의 건강을 되찾는데 쓰여지게 된다.

전국 불교교양대 새포교사 배출

1천6백명 졸업 5백50명 자격증 받아

95학년도 불교교양대학 졸업식이 한창이다.

전국 50여개 불교대학 가운데 20여개 대학은 이달중으로 일제히 졸업식을 거행하고 1천6백여명의 학인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이들 졸업생가운데 5백50여명은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게 될 전법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금년도 졸업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부산불교대학(학장 이하우)으로 18일 오후 3시 학교 법당에서 2백68명이 졸업식을 거행한다.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도 26일 오전 10시 제6회 불교대학 법사과 졸업식 및 전법사 품수식을 갖는다.

전북불교대는 지난 12일 전법사 자격고시를 실시, 17명의 학인이 법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광주불교대,금강불교대, 보현불교대가 2월중으로 졸업식을 거최한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졸업시기와 때를 맞춰 포교사들의 자질향상과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포교사 양성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나 찾기' 연구원 26일 한불청에 개설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오는 26일 태고종 참나 선원에서 청소년 문제 전문 상담소인 '참나 찾기 청소년 상담연구원'을 개설한다.

상담 연구원은 청소년들의 신앙상담 진로상담을 비롯 각종상담을 전문상담요원이 직접 상담하여 부설기관으로 '마음의 전화'를 운영하여 신앙생활 및 일반사회생활에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무료로 상담해 줄 계획이다.

또한 청년회는 이날 오전 10시 총무원 설법전에서 신년연합법회 및 만해 한용운선사 정신계승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중앙승가·동국대 24일 졸업식 거행

중앙승가대학과 종립 동국대는 오는 24일 각각 졸업식을 거행한다.

승가대는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1백여명을, 동국대는 이번 하위수여식에서 박사 42명 석사 285명 학사 3천5백여명등 총 4천여명의 졸업생을 각각 배출한다. 또한 종립 초·중·고등학교에서는 13~17일까지 졸업식을 갖는다. 은석국민학교 17일, 금정·해동중학교는 16일에 각각 졸업식을 갖는다.

국보41호 용두사지철당간

균열·부식 "심각"

청주시는 8일 국보 41호인 용두사지 철당간(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48의 19)의 균열, 부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보존대책을 마련키로했다. 시에 따르면 9일 문화재관리국 산하 문화재연구소에 용두사지 철당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의뢰,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존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20개의 철통으로 이뤄진 용두사지 철당간이 풍화작용 등으로 일부 철통에 심한 균열이 생기거나 부식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당간과 지주를 연결하는 장치와 철통 사이의 틈이 크게 벌어지는 등 원형이 손상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두사지 철당간은 사찰의 각종 행사때 불기를 걸기 위해 고려 광종 13년(9백62년)에 제작된 높이 60cm, 직경 43cm의 철통 20개(전체 높이 12.7m)를 조립한 것으로 제작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당간기가 철통에 양각돼 있으며 지난 62년 국보 41호로 지정됐다.

목탁소리

본사주지 연수회

정성운 〈취재2부 기자〉

조계종이 드디어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징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해 4.10 승려대회, 4.13 서의현 전총무원장 사퇴발표, 11.21 총두원장 선거 등의 고비 때마다 큰 변화의 기류를 감지했을 것이다. 가깝게는 지난 1월 9일 월주 총무원장의 종무계획 발표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권화임에는 틀림없지만 조계종의 지난 역사를 보아온 사람들의 내심은 기대반 의구심반이었음도 숨길 수 없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선언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전히 미래형이며 도면에 그려진 청사진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하나의 주목되는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본사주지연수회. 오는 20일부터 3일 동안 직지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얼핏 보면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있었던 무슨 무슨 연수회니 재교육이니 하는 것들과 별로 달라 보이는 것은 없다. 다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국사회 속에서의 종교현황' '지도자로서의 자기역할' '지자제와 불교의 대처방안' '통일전망과 불교계의 대응' 등 굵직하고 중요한 현안을 숙고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연수회로서 1천6백년 묵은 고목에 새싹이 움트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월주 총무원장 스스로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연수회에 앞장서서 임하겠다는 다짐이다. 아울러 본사주지를 비롯한 중진스님들에게도 직접 참석하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그러나 기대는 여전히 이르다. 연수회에 어떻게 임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수회 소식은 이미 불교계신문과 불교방송을 통해 많은 불자들에게 알려졌다. 소식을 들은 불자들은 한결같이 잘한 일이라며 반겼다. 또 교계의 매체들은 연수회 소식을 앞다퉈 불자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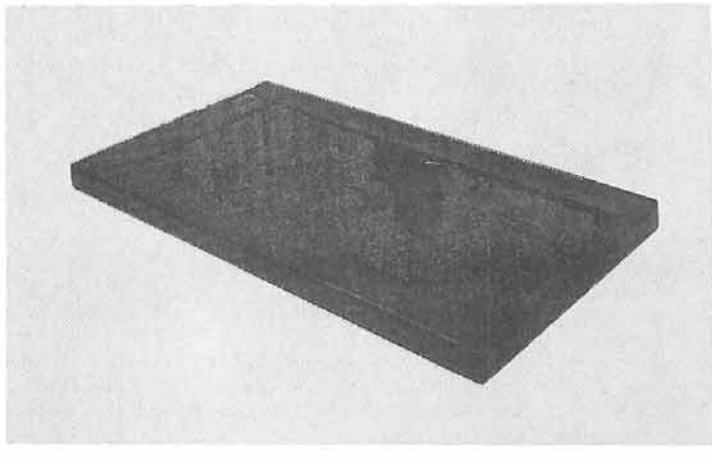
이번 연수회가 열리는 직지사에 불자들의 눈과 귀가 몰려 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전기용품 Q마크 획득
품질보증
EMI

돌 자연석
인간의 몸은 소우주 자연의 기를 원한다



전국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로 상담하여 주세요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실까요?

■전화 주시면 계약금만으로 바로 설치해드립니다.
고객감사 현금가 10개월 할부 단행!!

생산자 — 총판 — 대리점 — 백화점 — 소비자
•기존 사용하시는 침대를 수맥방지 돌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

■현대인의 질병 그 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 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라듐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맥방지 돌침대는 이러한 독소와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수면과 건강을 지켜주는 돌찜질기입니다.

■온돌침대는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불면증·비만·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건강상담실 운영